

“지방선거 ‘노무현·문재인 마케팅’ 그만”...민주당 제동 나섰다

단순 대선캠프 이력까지 표기해 표심 왜곡 우려

인지도 높이기 안간힘 쓰던 입후보예정자들 비상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이른바 '노무현·문재인 직함 표기' 경쟁에 제동을 건다.

단순한 대선캠프 경력까지 표기하는 것은 과도할 뿐더러,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과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문재인 직함'을 대표 경력으로 사용해 인지도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던 입후보예정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8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경력을 보면 다수가 스스로 '노무현·문재인 사람'임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다.

선관위 예비후보자 경력란에는 자신의 대표 경력 2가지만 써넣게 돼 있는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물론이고 과거 대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출마자들도 하나같이 해당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문재인 대선 후보 직함을 앞다퉈 사용하고 있거나,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직함 등을 경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문재인 직함 마케팅'이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예비후보 사이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표경력에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 자만 들어가도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

그러나 자칫 과거의 직함 과시에만 매몰되면 '지역 일꾼'으로서 현재 자신의 역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에 미흡할 뿐더러, 실제와 달리 마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유권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대선의 경우 후보의 지지세 확장을 위해 대선 캠프 직함을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는 점에서 대선 캠프 표기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었다.

이처럼 '노무현·문재인 직함 마케팅'이 과열되자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아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직책을 내려놓기도 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우 노무현·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소위 '선대위원' 직책을 안 맡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합치면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경선을 치러야 할 후보자들의 대표 경력에 '제한'을 두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노무현·문재인 마케팅'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물론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대선캠프 활동 이력 등은 대표 경력으로 소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대표 경력과 관련한 기준을 이달 중순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때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선거 캠프 직함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과 4대보험 적용 등이 되어야만 대표 경력으로 사용하는 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11일 긴급 의총 공동교섭단체 구성 재논의

정체성 혼란 우려 대응책 등 모색

정의당은 8일 국회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1일 긴급 의총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상무회 후 기자회견과 만나 "일요일(11일)에 비공개 의총을 열어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건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앞서 전남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당내 여론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은 원내 지도부가 단순하게 찬반부터 묻는 대신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제시한 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이번 긴급 의총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평화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말지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전남지역 당원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정체성 혼란 우려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할 수

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 정당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헌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를 마지막 선선으로 당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년 일자리 로드맵 '특단의 대책' 뭉개 나오나

정부 15일 발표...추경 카드·보조금 직접 지급 등 검토

문재인 정부가 오는 1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사하겠다는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직접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일지리를 얻

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안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이 창업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20만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을 2.9명씩 고용하는 창업기업 수를 12만개로 예년보다 2만~3만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간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할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지지율 65.6%...0.9%P 하락

北 특사단 효과 안희정 파문에 반감...민주·한국당도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대북특사단의 3·5 남북합의 효과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악재가 겹쳐 0.9%포인트 하락, 60%대 중반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6%로 지난해 주간집

계 대비 0.9%포인트 내렸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9.4%로 0.1%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확산한 여파로, 대북 특사단과 3·5 남북합의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반감됐다"고 분석했다.

일간 집계로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2월 64.9%를 기록한 후 대통령 특사단이 방북했던 5월 66.5%로 올랐다. '안희정 성폭행 의혹'이 확산한 6월에는 63.9%로 내렸지만,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

담이 열린 7월 3·5 남북합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66.7%로 다시 상승했다.

정당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2.4%포인트 내렸다. 1위 자리를 지켰으나 다시 50%선 밑으로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18.6%로 1.1%포인트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9.1%로 2.3%포인트 오르며 통합창당 이후 첫 상승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5.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안희정 의혹'의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2.7%로 0.3%포인트 내렸다. 특히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4.6%포인트 내리며 4.5%에 그쳤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7073-증-83321호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자켓을 입고 벗기가 불편한가요?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중점 치료
비수술적 주사 치료 및 관절내시경 시술은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위치